

(주소) 15385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전화) 031-481-7000 (팩스) 031-481-7053

배 포 일	2025. 8. 28.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보 도 일	배포 즉시				
경기도미술관, 기후 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연계 원데이 프로그램 개최		3	2	gmoma.ggcf.kr	부서 :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팀 전시 담당 : 김현정 학예연구사 전화) 031-481-7033 홍보 담당 : 유채린 학예연구사 전화) 031-481-7043

경기도미술관, 기후 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연계 ‘원데이 프로그램’ 개최

프로그램명	기후 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연계 원데이 프로그램 개최 : 에너지 전환 관련 오픈 특강과 기후 위기 영화 상영·참여 작가와의 대화까지
일시	2025년 8월 30일(토) 오후 1:30~5:30
장소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
내용	1부 오픈 특강: ‘에너지 전환, 생각의 전환’, 김선교 박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부 영화 상영 및 참여 작가와의 대화: <히어 나우 프로젝트(The Here Now Project, 2024)>
주최주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협력: 기후변화센터)

▶ 경기도미술관, 에너지 전환 관련 오픈 특강, 기후 위기 영화 상영, 그 리고 기후 위기 특별전 참여 작가(박선민, 이채원)와의 대화 개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오는 8월 30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에서 기후 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연계 ‘원데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과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후 전시 참여 작가와의 대화까지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관람객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 중인 기후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의 연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전시는 해와 달, 바람과 파도, 대지와 바다, 나무와 강 등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이 잠시 스쳐가

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이 초래한 기후 위기 현상을 '자연의 시선'으로 사유하는 작품들에 주목한다.

1부 오픈 특강

「기후위기, 문 앞에서 마주한 질문들」

오후 1시 30분~3시, 경기도미술관 강당

'에너지 전환, 생각의 전환', 김선교 박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오픈 특강에는 '에너지 덕후'로 불릴 만큼 에너지 분야에 깊은 애정을 지닌 김선교 박사가 나선다. JTBC <차이나는 클래스> 등 다양한 방송과 강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온 그는, 에너지의 역사와 재생에너지의 흐름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대표적인 에너지 커뮤니케이터다. 이번 강연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2부 기후 위기 영화 상영회 및 작가와의 대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지구」

오후 3시 30분~5시 30분, 경기도미술관 강당

상영작 소개: <히어 나우 프로젝트(The Here Now Project)>(2024)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기후 위기 영화 특별상영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지구」가 이어진다. <히어 나우 프로젝트>는 그레그 제이컵스(Greg Jacobs)와 존 시스켈(Jon Siskel) 감독이 연출했으며, 상영시간은 75분이다.

에미상 수상작인 9/11 다큐멘터리 <아메리카를 바꾼 102분(102 Minutes That Changed America)>(2008)의 사용자 제작 중심 동영상 방식을 기후변화 주제에 적용한 이 작품은 피해자·가해자 구도나 정치적 메시지 대신 날것 그대로의 영상과 본능적 몰입을 통해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의 현실을 감각적으로 전달한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촬영된 영상이 17개국, 12개 언어로 구성되어, '국경 없는 공감'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형식의 기후 영화이다.

영화 상영에 이어 이번 특별전 참여 작가 박선민, 이채원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돼, 영화와 전시,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기후 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는 오는 10월 26일까지 경기도미술관에서 진행된다.

[붙임자료] 프로그램 안내 및 구성 [이미지 원본 별첨]

**기후위기,
문 앞에서 마주한 질문들** #오픈특강 2회차

《에너지 전환, 생각의 전환》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
오후 1:30~3:00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지구 #기후위기 영화 특별 상영회

The Here Now Project 75분
오후 3:30~5:30

*상영 후 작가와의 대화
 기후 위기 특별전 《가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참여 작가 이채원·박선민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경기도미술관

1. 원데이 프로그램 안내(오픈특강+영화 상영회)

2025 동시대 미술의 현장
 기후 위기 특별전 《가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전시 연계 프로그램
기후위기 영화 특별상영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지구**

[프로그램 안내]

일시 2025년 08월 30일 토요일 15시 30분 ~ 17시 30분
장소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 '열기도 향산사' 1관 1층 266

시청자 : 30명 선 분량기록 대외과 대용

구분	시 간	내 용
입 장	15:20~15:30 10'	입장 및 착석
오프닝	15:30~15:35 5'	『오프닝』 영화 소개 및 프로그램 안내
상영	15:35~16:50 75'	『The Here Now Project』 기후위기 영화 특별상영회
토 쿨	16:50~17:25 35'	세션1 『영화 소개 및 연상적인 장면 나눔』
		세션2 『기후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경험 공유』
		세션3 『기후이슈와 작품활동과의 연관성』
		세션4 『영화 관객 소개 및 영화 평가』
		세션5 『재널 마무리 발표』
마무리	17:25~17:30 5'	종료

2.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지구' 영화 상영회 프로그램 안내